



이익구 / 정회원,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참건축
by Lee, Eui-koo, KIRA

- 약력
- 대한건축사협회 23대 회장
 - 현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이사장

FIKA(한국건축단체연합)의 설립과정에 대한 나의 회고

My reminiscences about the foundation process of FIKA

필자가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에 취임한 1998년 말의 우리나라는 최초로 선거를 통한 여야 정권교체로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해로서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라는 IMF 사태로 인한 대혼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금모으기 운동을 하는 등 온 나라가 경제적 불안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었다.

대한건축사협회도 이러한 국가적 경제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협회 예산을 무조건 전년도의 1/2로 감축하는 건축운영체제로 전환할 것을 총회에서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90여명에 달하는 사무처 직원 중 절반을 감원해야하는 어려운 작업이 첫 과제로 본인 앞에 주어졌으나 임원들의 슬기로운 노력과 직원들의 협조로 원만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그러나 '엮친 데 덮친다' 는 말처럼 내우(內憂)를 잠재울 겨를도 없이 외환(外患)에 시달려야 했다. 즉 WTO에 의한 건축설계 서비스 업무의 시장 개방과 자유화에 따라 건축사 자격에 대한 국가 간 상호인정 문제가 대두되고 이를 위한 기준으로써 "건축사의 전문성에 대한 국제권장 기준에 관한 UIA 협정" 이 1999년 6월에 북경 UIA 총회에서 채택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건축사 자격시험 및 건축교육의 개선 등 혁신적인 개혁이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특별히 이러한 개혁을 빨리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은 중국 같은 후진국도 이미 이에 맞는 5년제 건축학제를 갖고 있는 데 반하여 수출로 먹고 살아야하는 자원빈국인 대한민국은 일본제도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교육제도와 건축사제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세계 수준과 동등한 건축교육제도와 건축사 제도를 갖추므로써 건축설계 시장의 개방과 국가 간 상호인정 문제에 대비하고 하루속히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요 불가결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당시 WTO에서는 이러한 대책의 세부기준과 실무에 대한 협의는 UIA(세계건축사연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상태였다. 따라서 이제까지 세계건축사들의 친목과 교류의 장이었던 UIA는 세계건축분야에서 그 위상과 역할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영향력과 권위 또한 한층 증대 되었다.

이러한 UIA에는 대한건축사협회보다 일찍 발족한 한국건축가협회가 회원단체로 이미 가입되어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예나 지금이나 건축사법에 의하여 국내에서 건축설계자가 활동이 법적으로 허용된 유일한 단체인 대한건축사협회는 이들을 후원하며 간접적인 소식만 접하는 먼산바라기만 해왔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국가가 주어진 건축사 면허를 받은 전 회원들로만 구성된 대한건축사협회가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UIA에 가입해 상기와 같은 중요한 업무를 국제사회에서 모든 국가들과 토론하고 협의함으로써 우리나라 건축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축설계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당위성과 사명감으로 나는 과감하게 한국에서 UIA 회원단체를 한국건축가협회(KIA)에서 대한건축사협회(KIRA)로의 변경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UIA에 제출하게 되었다.

예상한대로 KIA측의 거센 반발과 비판은 엄청 났으며 건축계에 일대 혼란이 야기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이는 WTO의 건축설계시장 개방에 따른 건축사 상호인정 문제 및 그에 따른 세부적인 경쟁 매뉴얼을 협의 결정하는 UIA에 한국의 법적인 작가 단체인 대한건축사협회가 직접 참석하여 우리 건축사들의 권익과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사명감과 당위성으로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필자는 당시 대한건축사협회 임원 및 국제위원들과 치밀하고, 조심스럽고, 적극적인

시드니에서 개최된 UIA 121차 이사회는 한국건축가협회와 대한건축사협회가 공동 제출한대로 한국의 가입단체를 KIA에서 FIKA로 변경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으며, 이 역사적인 자리에서 UIA 사무총장인 뽀르피용 여사로부터 NEW MEMBER FIKA의 가입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인사와 더불어 다정한 포옹으로 축하인사를 받았을 때 필자는 만감이 교차하는 흥분 속에서 몸을 가눌 수가 없었다. 실로 2001년 한 해 동안 FIKA의 탄생을 위하여 올인 한 결과였다.

3단체가 명실 공히 UIA에 정회원 단체로 가입되어 3단체의 특수성을 살리면서 우리나라 건축발전에 공동 노력을 할 수 있게 되었음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여겨진다. 또한 한창 논의되고 있는 건축계 통합의 밑거름이 되었다.

으로 추진하였다.

즉 ARCASIA(아시아건축사협의회)포럼을 1999년 10월 서울에 유치하고 16개국 회원국을 설득하여 'UIA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멤버(회원국)는 KIRA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의문을 마지막까지 동의를 보류하는 중국과 일본 대표를 설득하여 만장일치로 채택 하는데 성공하고, 당시 우리나라 건축법을 주관하고 건축사의 면허와 시험을 주관하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한국의 건축설계분야를 책임지는 단체는 법적으로 대한건축사협회가 유일한 단체다'라는 확인서를 받아 내었으며, 더불어 여러 가지 국내의 현실적인 상황을 기록한 신청서를 영문책자로 작성하여 UIA 사무국에 제출하였으며, 마침 아가시아 포럼 참석차 서울에 온 '바실리 스코타스' UIA 회장을 협회로 초청하여 직접 설명을 하는 기회도 만들었다.

스코타스 회장은 설명을 경청한 후, 자기가 직접 확인한 한국 내 건축단체들의 현황을 살펴본 소감과 함께 이회장의 주장에 동감하고 충분히 이해되지만 지금까지 36년간 UIA 회원으로써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하여온 KIA를 일방적으로 탈퇴시키는 것은 절차상으로도 의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방법이 있다면 하나의 국가에서 둘이상의 단체가 공동으로 새로운 이름의 조직으로 가입하는 에드 혹 바디(ad hoc body)형식의 가입 방법을 권유하는 것이었다. 필자는 그럴 수 없다고 반대하고 한국건축가협회 또한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에 처하게 됨으로서 무산의 위기에 봉착하였다. 그러나 절차상 스코타스 회장의 중재안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이후 필자는 체코의 프라하, 이집트의 카이로, 호주 시드니 등에서 개최된 UIA의 PPC 등 각종 회의에 참석하고 프랑스 파리의 UIA 본부 및 그리스 아테네의 스코타스 회장의 자택까지 직접 방문하며 집요하고 끈질긴 노력 끝에, 스코타스 회장의 적극적인 중재로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건축가협회는 물론 대한건축학회까지 참여하는 FIKA라는 제3의 단체로 2002년 2월 28일 대한건축사협회에서 현판식을 거행하는 감격을 맛 볼 수 있었다. 이에 앞서 FIKA 단체의 결성 합의문은 한국건축가협회(KIA) 황일인 회장님과 대한건축학회 정재철 회장님 그리고 필자가 공동서명하고 날인 하였다.

돌이켜보면 2001년 9월 23일은 잊을 수 없는 날이다. 그 날 시드니에서 개최된 UIA 121차 이사회는 한국건축가협회와 대한건축사협회가 공동 제출한대로 한국의 가입단체를 KIA에서 FIKA로 변경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으며, 이 역사적인 자리에서 UIA 사무총장인 뽀르피용 여사로부터 NEW MEMBER FIKA의 가입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인사와 더불어 다정한 포옹으로 축하인사를 받았을 때 필자는 만감이 교차하는 흥분 속에서 몸을 가눌 수가 없었다. 실로 2001년 한 해 동안 FIKA의 탄생을 위하여 올인 한 결과였다.

지난날을 다시 생각해보면 아쉬움도 없진 않으나 한국 건축을 대표하는 3단체가 명실 공히 UIA에 정회원 단체로 가입되어 3단체의 특수성을 살리면서 우리나라 건축발전에 공동 노력을 할 수 있게 되었음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여겨진다. 또한 한창 논의되고 있는 건축계 통합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 중에는 당시의 김지덕 위원장 및 이정근, 이관영 이사, 그리고 현 ARCASIA 회장인 이근창 위원을 포함한 김홍일, 이필훈 국제위원 및 송기준 감사의 헌신적인 초아의 협조와 노력이 절대적이었음을 기록하고 그분들에게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 ■